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새해 1월 6일(화요일) 부터 다시 재개 될 예정입니다.

## 3. 송년주일

2025년 한 해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예배를 주님께 감사로 올려 드립니다

## 4. 신년주일

다음 주일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 지난 주 (12/21)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358.93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12.28 (636호)

말씀의 빛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성호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1:20-28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머리를 들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 주일대표기도

1월 4일(신년예배)	1월 11일
서경열	최은숙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말씀은 육신이 되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절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탄절은 의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분위기가 세상적인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버린지 오래 되었지만, 성경적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태초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세계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글자로서 언어로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알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풀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시선에 보기 좋은 행위로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평가하고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한 표현은 오신 것이 아니라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신적 존재인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신이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기 비움이 담긴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거둔다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과연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공활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자기를 포기하심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